

호남 전력수요 확대...송전망은 여전히 ‘수도권행’

전남광주지역의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호남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 등으로 보내는 기존 송전망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 내 전력 소비가 크게 늘어날 상황임에서도 외부 공급 중심의 전력망 구축이 추진되고 있어 신규 산업수요를 반영한 송전 용량과 투자 우선순위, 건설시점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호남의 대규모 신규 전력수요가 기존 국가기간전력망 계획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재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밝혔다.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된 국가기간전력망 가운데 호남에서 수도권·충청권 방향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4개 사업의 사업비는 총 5조 8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직접 연계된 변환소 6개 사업비 6조 4000억원을 합하면 12조2000억원이다. 예타면제 대상 15개 사업 전체 사업비 14조2000억원의 약 86%가 호남의 전력을 외부로 보내는 송전망과 관련 설비에 집중됐다는 분석이다.

예타면제 사업비 86% 외부 공급 설비 집중

반도체·AI 투자 반영 용량·준공시점 재검토

이들 송전망은 호남의 원전·재생에너지 전력을 수도권 등 대규모 수요지로 보내기 위해 계획됐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신해남~태안~서인천, 새만금~태안~영흥 등 송전선로 건설 필요성을 호남권 원전·재생에너지의 계통 연계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호남의

전력수요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 계획에 따라 서남권에는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가 추진되며, 반도체 생산시설 4기의 예상 전력수요만 약 6.3GW에 이른다.

여기에 SK의 1GW급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삼성·강진 AI 데이터센터, 해남 국가 AI컴퓨팅센터 등 추가적인 대규모 전

력수요도 추진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발표 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8월 기존 국가 기간전력망 15개 사업의 예타면제를 확정했다.

서 의원은 “호남에 6.3GW 규모의 반도체 신규수요가 생겼다면 우선 이 수요가 기존 국가기간전력망 계획에 실제로 반영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신규수요를 반영하기 전과 후에 호남에서 외부로 보내야 하는 최대 전력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 예정된 제12차 전력수급기본 계획 확정 과정에서 호남의 신규수요와 재

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 지원 강화를 반영해 권역 간·권역 내 전력망 용량과 투자 우선순위, 준공시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예타면제가 확정된 사업도 현재의 수요·공급 조건에 맞춰 다시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과정에서 전력망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불필요한 사업이 없는지 추가로 살펴 현재 조건에 맞는 최적의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상의, 정규직 전환형

인턴 채용...27일까지 접수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경제와 기업의 성장을 함께 이끌 인재 확보를 위해 정규직 전환형 인턴을 공개채용한다.

채용 분야는 일반사무직으로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입사 후 부서 배치에 따라 경영·총무, 회계·세무, 정책건의·조사, 국가자격검정, 정부·지자체 협력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채용된 인턴은 오는 12월 1일부터 5개월간 근무하며, 근무성과와 업무수행능력, 조직적응도 등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최종 임용된다.

지원자는 학부 성적과 공인어학성적 등 광주상의가 정한 채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부 지원자격과 우대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된다. 필기전형은 인성검사와 적성검사, 논술시험으로 구성되며, 면접에서는 직무수행 적합성과 의사표현력, 논리력, 성실성,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7일 오후 5시까지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지역경제와 기업현장을 이해하고 상공회의소와 함께 성장해 나갈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상의 홈페이지(www.gjcc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소진공, 국내 최초 'ISO37003' 인증 획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ISO 37003 인증을 국내 최초로 취득한 가운데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ISO 37003:2025(Fraud control management systems)는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Fraud)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25년 5월 29일 처음 제정한 국제표준이다.

전남 저수율 39.6%...가을 영농 물 부족 커진다

평년 63.3% 수준...전남광주 12곳 평년 대비 10%도 못 채워

전남지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가을 영농에 필요한 용수 확보에 이상이 걸렸다.

특히 전남광주에서는 평년 대비 저수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저수지가 12곳에 달해 가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대체 수원 확보와 용수 공급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전남지역 공사 관리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39.6%로 집계됐다. 이는 평년 저수율의 63.3% 수준이다. 전국 평균 저수율(47.1%) 보다 7.5%p 낮았으며, 제주 33.7%, 전북 34.3%에 이어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전남광주에서는 평년 대비 저수율이 10% 미만인 저수지가 12곳으로, 전국 19곳 가운데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신안 오상저수지는 평년 대비 저수율이 3.27%에 불과했다. 이어 장흥 오도 4.20%, 장성 점암 4.54%, 장흥

동촌 5.19%, 함평 용성 5.54%, 해남 구시 6.02% 등으로 나타났다. 신안 기동 6.42%, 곡성 죽전(석곡) 6.70%, 고흥 봉림 7.60%, 강진 화산 9.11%, 장흥 하분 9.18%, 해남 삼덕 9.88% 등도 평년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전국적으로도 농업용수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1914곳 가운데 평년 대비 저수율이 70% 이하인 곳은 748곳으로 전체의 39.1%를 차지했다.

가뭄 단계별로는 '관심' 225곳, '주의' 150곳, '경계' 130곳, '심각' 243곳이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벤처펀드 47.7% 수도권 투자...쏠림 뚜렷

광주권 298억·전남권 63억원 수도권 기업에 투자

지방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 벤처펀드 투자금 상당액이 수도권 기업으로 흘러가면서 전남광주지역에서도 지역 벤처금융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 벤처금융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모태펀드 출자로 결성된 지역 벤처 모펀드는 모두 12개로, 결성액은 1조223억원에 달했다.

이들 모펀드의 출자를 받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자펀드는 2026년 8월까지 444개 기업에 총 4655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전체 투자액 가운데 비수도권 기업에 투자된 금액은 2435억원(52.3%)에 그쳤고, 수도권 기업에는 2220억원(47.7%)이 투자됐다. 투자 기업 수도 비수도권 246개사, 수도권 198개사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와 연관된 지역 펀드에서도 수도권 투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2022년 결성된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비수도권 기업 31곳에 352억원을 투자한 반면 수도권 기업 26곳에도 298억원을 집행했다.

'경북·전남 지역혁신 벤처펀드' 역시 비수도권 기업 6곳에 65억원, 수도

권 기업 7곳에 63억원을 투자했다. 지역 기업에 투자한 금액과 수도권 투자액의 차이가 2억원에 불과했다.

지역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쉽지 않은 배경에는 벤처투자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이 자리 잡고 있다.

2026년 7월 말 기준 전국 벤처투자회사 253곳 가운데 225곳(88.9%)이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벤처투자회사는 28곳(11.1%)에 불과했다.

지역 벤처펀드 자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사 역시 88곳 가운데 57곳(65%)이 수도권에 자리 잡았다. 지역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운용 주체부터 수도권에 집중된 셈이다.

신규 벤처투자 역시 비수도권 비중이 낮았다.

2022~2026년 6월 전체 신규 벤처투자액은 30조1335억원으로, 이 가운데 비수도권 투자액은 6조2838억원으로 20.9%에 그쳤다. 같은 기간 수도권 투자액은 21조1650억원으로 전체의 70% 인원을 차지했다.

지역 펀드의 의무투자 비율도 한계로 지적됐다.

2021~2024년 지역 모펀드는 지방 정부 출자금의 2배 이상을 해당 지역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기준이 적용됐다. 운용상 기자 y01404@

아카데미홀 대관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광남일보 사옥 1층)

스크린 및 음향 최고시설 완비

교육연수, 연회, 세미나 등

시설 사용인원(최대) : 150명

대관료 : 오전 10만원/시간 · 오후 20만원/시간
※ 오전·오후 이용시간은 별도 문의

